

안전은 회사와 근로자가 성장하는 밑거름 (주)글로스코

취재 · 사진 | 김성대 기자(glsu002@safety.or.kr)

안전은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산재왕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산업재해는 개인적인 손실을 넘어 사회·경제적으로도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을까요, 저는 작업자의 안전의식, 관리감독자의 관심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사의 작업환경 개선노력 이 세 가지가 서로 적절하게 조화돼야 산재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안전 활동에는 임원과 직원, 생산직과 관리직의 구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는 먼저하고 누구는 따르기만 해서는 안전을 확보할 수 없는 것이지요, 서로가 솔선수범해서 모범을 보인다면, 반드시 주변사람에서 그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 같은 안전 활동을 위한 가장 기본이 3정5S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모든 산업현장에서 3정5S가 정착되고, 제대로 활성화 된다면 산재의 대부분은 줄어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최태수 전무이사

(주)글로스코는 지난 1989년 설립된 이래 계속해서 분말야금(소결)부품만 만들어온 제조전문 회사다. 이곳에서는 주로 자동차의 엔진이나 냉각장치 주변기기, 변속기, 전기장치 등에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 외에도 산업용 기계구조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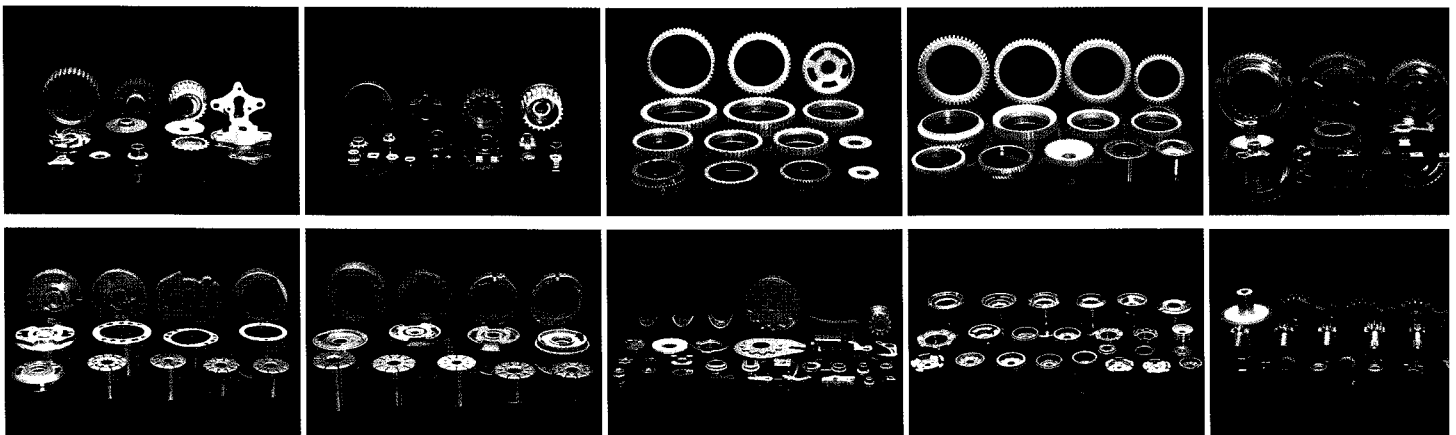
이곳에서는 부품 제조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함께 설비 증설 등의 노력을 계속했다. 그 결과 부품의 국산화에 성공하는 것은 물론 ISO/TS16949, SINGLE PPM, ISO 14001, SQ인증 등을 획득해 국제적으로도 그 품질을 인정 받았다. (주)글로스코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품질강화에 힘써 도요자동차를 비롯해 미국, 일본, 중국 등 세계 각국으로 부품을 수출하고 있다.

이렇게 눈부신 성장을 하고 있는 이곳의 경영방침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다름 아닌 '인재양성'이다. '우수한 인력이 높은 품질의 제품을 만들고, 그것이 결국 경영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생각'에서 이런 경영방침을 모토로 하고 있다. 그렇게 인재를 생각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

근로자의 안전이 곧 회사의 발전과 직결된다는 인식이 확고한 (주)글로스코를 찾아가 봤다.

우수한 제품은 근로자 안전이 확보되어야

이 회사의 경영방침에서는 근로자들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의지를 곧바로 엿볼 수 있다.



'인재 양성' 과 '사원복지 증진' 이라는 두 개의 큰 경영방침을 바탕으로 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의식은 곧 근로자들에게도 전해져, 현장 근로자들 모두는 나 자신은 물론 동료 근로자들의 안전까지 책임진다는 마음 가짐을 갖고 있다.

(주)글로스코에서는 이런 안전 활동을 유지시키기 위해 직무별로 공정을 진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에 대해 반복적으로 안전교육을 하고 있다. 또 근로자들은 현장에서 위험요소가 발견되면 즉각 경영진·관리자에게 시정 건의를 요청하고 있다.

이렇게 이 회사에서는 경영진·관리자는 물론 전 종업원이 안전의식을 지니고 있다.



위험요소는 사전에 제거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성형, 교정, 선반, 와이어 커팅 등의 작업이 필요하다. 즉 이들 공정을 하기 위해 기계들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또 이런 위험한 기계들을 사용하는 만큼 상당한 위험요소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선반 작업 시에는 회전체 사용에 따라 말림이나 협착 등의 사고 위험이 높다. 또 원자재를 입고하는 과정에서 비산먼지가 발생할 수도 있고, 여기에 혼합된 원재료와 부재료를 혼합하는 과정에서 지게차가 이용되면서 근로자들이 협착사고를 당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위험요소에 대비하기 위해 (주)글로스코에서는 위험 요인별로 안전시설 및 장비들을 철저히 갖춰놓고 있다. 안전보호구를 모든 직원들에게 지급하고 있고, 화물차, 지게차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각 차량에 후방 센서를 부착했다. 또한 포장용 기계 등 압착사고의 위험이 높은 기계에도 안전장치를 해 두었다. 작업 시 근로자들의 청력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귀마개 등 보호 장비도 지급해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이다.

끊임없는 안전 활동 전개

이 회사의 안전 활동은 꼼꼼하다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이뤄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안전대행기관인 대한산업안전협회와 공조해 매일 크고 작은 2~3가지의 위험요소를 찾아내 개선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회사에서는 공정과정에 따른 위험요소 외에도 근로자 건강을 위한 활동도 전개해 나가고 있다. 130여명의 근로자들에게 건강정보를 수시로 제공해 모든 직원들이 건강에도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샤워실, 휴게실 등을 마련해 편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주별·월별·분기별로 어떤 안전 활동이 필요한지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나가는 것은 글로스코 안전 활동의 백미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까닭에 고용노동부에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해도 특별히 지적할 것이 없을 정도다. 앞으로도 이곳에서는 안전과 관련된 근로자들의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다른 무엇보다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 (주)글로스코. 이 회사가 중·소제조업 중 안전 활동에 대표적인 기업으로 우뚝 서길 기원해 본다. ☺

